

《함께 걷는 배움》 -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청소년을 위한 이해와 실천의 이야기

1. 기획 의도 및 목적

1) 기획 의도

- 나눔공동체학교의 교육 철학과 대상자 이해 내용을, 전문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대화 형태로 풀어내는 팟캐스트 시리즈를 제작함
-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기관의 정체성과 접근 방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함

2) 목적

-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철학과 실천 방향을 공유하여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 내부적으로는 교사 및 실무자의 교육 방향 일관성을 유지
- 추후 신입교사 양성과정의 입문 자료(인트로 콘텐츠)로 활용 가능

2. 주요 구성

1) 형식 : AI 음성 기반 대담 형식 (에피소드당 약 5~8분)

2) 총 편수 : 10편 (필요시 주제 추가 예정)

3) 대상 : 느린학습자 및 경계선 청소년을 만나는 교육자, 보호자, 일반 청취자 등

4) 참고자료

① 내부자료 :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역의 노력과 자립에 이르기까지, 신입교사양성과정, 청소년지도론, 함께성장교육 기관소개서

② 외부자료 : 학령기 경계선 지능의 아동에 관한 문헌적 고찰(박미희 논문), 느린학습자의 이해(대교)

5) 회차별 주제(※[첨부] 회차별 주제 및 요약 참조)

회차	제목	핵심 내용 요약
1화	나만의 속도로 배우는 아이들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발달의 다양성 이해
2화	공부가 어려울 때	단순한 노력 부족이 아닌 인지적 요인 이해
3화	마음이 열려야 배움도 시작됩니다	정서적 안정과 신뢰의 중요성
4화	곁에 있어주는 어른	기다림과 반복의 관계적 교육 실천
5화	함께 배우는 힘	소그룹 속에서 자라는 공동체적 감각
6화	몸이 기억하는 배움	감각과 인지 연결 기반의 배움 이해
7화	삶으로 연결되는 배움	일상 활동과 생활기술 중심 교육 강조
8화	진로란, 나를 알아가는 여정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9화	함께 키우는 아이	지역사회와 가정의 협력적 지지 체계
10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교육과 지속 가능한 성장 이야기

3. 업로드 및 배포계획

1) 업로드 채널

- 유튜브 '함께성장교육' 공식 채널
- 기관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2) 업로드 일정

- 격주 2회 업로드 (숨결이야기와 교차 편성)
- 총 5주간 10회차 완성 예정
- 이후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후속 주제 기획 가능

3) 기획 보완 사항

- 썸네일 및 소개 문구 정리
- 회차별 대화 스크립트 요약본 병행 제공 가능
- AI 음성 자연도 사전 검토 및 적용 기준 확보

4. 피드백 및 향후 확대 계획

1) 연장 시리즈 기획 가능성

- 교사 역할, 부모와의 관계, 협력적 교육 실천 등 주제로 추가 시리즈 구성 가능
- 학습자 음성 또는 사례 기반 구성 콘텐츠로의 확장 고려

2) 교육자료화 가능성

- 향후 연수자료, 오프라인 교사교육 자료와 연계
- 교육청 대상 홍보 또는 자료집 제작 기반 자료 활용 가능

5. 화면 예시



〈함께 걷는 배움〉

1화.

나만의 속도로 배우는 아이들
- '느림'은 결함이 아닙니다

↓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배움〉

2화.

공부가 어려울 때
- '노력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

↓내용↓

공부가 힘들다, 어렵다

《함께 걷는 배움》

1. 나만의 속도로 배우는 아이들 - '느림'은 결함이 아닙니다

- 세상에는 배움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진 않지만, 이해나 적용, 문제 해결 등 여러 학습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땐 '느리다'고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 이들의 발달은 일관성과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 성장해 갑니다.
- '느림'을 결함이 아닌 발달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속도에 맞춰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교육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2. 공부가 어려울 때 - '노력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

- 누군가는 공부가 어렵다고 말할 때, 흔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어떤 아이들은 지적 능력, 감각 처리, 집중 지속 시간, 추상적 사고 능력 등 여러 요소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이들은 반복해도 쉽게 잊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자신감이 낮아져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 또한,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그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경우, 학습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배움의 어려움을 '의지 부족'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3. 마음이 열려야 배움도 시작됩니다 - 정서적 안정의 힘

-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일수록 반복되는 실패 경험, 부정적인 피드백, 관계의 단절로 인해 불안과 위축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 이러한 감정은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 정서적 안전은 말 한마디, 눈 맞춤, 기다려주는 자세,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 공감하고 반응해주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냅니다.
- 배움보다 사람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곁에 있어주는 어른 - 기다림과 신뢰가 만드는 변화

- 성장을 이끄는 힘은 '가르침'보다 '곁에 머무는 신뢰'일 때가 많습니다.
-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다양한 성향과 반응을 보입니다.
- 어떤 아이는 화를 내고, 어떤 아이는 스스로를 숨기고, 또 어떤 아이는 계속 질문하며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 이때 지도자는 모든 아이를 한 가지 방식으로 대하기보다, 각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작은 칭찬, 눈 맞춤, 정서적 피드백, 역할 부여 같은 관계적 실천이 아이들의 신뢰를 쌓고 변화를 이끕니다.
- 기다림과 꾸준함이 아이의 '시작해보려는 마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5. 함께 배우는 힘 - 소그룹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 배움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성장하는 공간은 때때로 '혼자가 아닌' 작은 집단 안입니다.
- 소그룹 활동은 아이가 타인의 반응을 보며 배우고, 역할을 맡아보며 주도성을 키우고, 실수해도 덜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 대집단보다 낮은 긴장감 속에서 아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실수를 통해 배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단은 또한 사회성, 의사소통, 갈등 조절력 같은 삶의 기술을 익히는 장이 되며, 그 속에서 공동체 감각과 자신감이 함께 자랍니다.

- 혼자 하기 어려운 배움이, 함께일 때 가능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6. 몸이 기억하는 배움 - 감각과 인지가 연결될 때

- 모든 배움이 머리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몸으로 먼저 느끼고, 경험하며, 움직이면서 배우는 과정이 더 효과적입니다.
-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하거나 과민한 아이들에게는 감각 체계가 학습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 이때 단순히 반복 설명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움직이는 활동 중심 수업이 감각과 인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 놀이, 관찰, 만들기,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느끼고 기억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 감각이 열린다는 것은, 배움이 들어갈 문이 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7. 삶으로 연결되는 배움 - 생활이 곧 학습이 되는 순간들

- 아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배움은 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 청소, 요리, 물건 정리, 돈 계산, 대중교통 이용 같은 생활 속 활동은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력, 순서 이해, 실행 능력,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 특히 학습이 느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활동이 추상적인 개념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지속가능한 배움으로 작동합니다.
- 이런 생활 기반 배움은 '혼자 살아가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기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 삶과 분리된 배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배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8. 진로란, 나를 알아가는 여정 -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세요

- 진로는 미래의 직업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반복하고 싶은 것을 알아갑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세계와 활동에 노출될 기회, 스스로 선택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 배움이 느린 아이일수록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기 쉬우며, 진로는 더 일찍 고정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진로는 단단한 목표보다 유연한 가능성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 진로는 나를 이해하고, 나의 방향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9. 함께 키우는 아이 - 연결된 손길이 만든 울타리

- 어떤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배움의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 교육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결되어 지지망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기관이나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며, 끊임 없는 돌봄과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이 나뉘어야 합니다.
- 작은 상점의 사장님, 동네 도서관, 부모 모임, 이웃 청소년 지도자...
- 이런 일상의 연결망이 아이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곳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10.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 평생을 함께하는 성장의 길

- 배움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배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성장이라는 말은 어릴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 자립, 사회 진입, 관계 맺기, 일상 유지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계속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 배움의 속도가 느린 이들에게는 속도보다 지속이, 단기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걸을 내어주는 사회, 그것이 함께 걷는 교육의 마지막 장면입니다.